



Halal
&
Vegetarian

말레이시아 할랄시장 동향

할랄과 하람

할랄(Halal)은 이슬람 율법(Shariah law)에 따라 허락되거나 허용됨을 의미하는 아랍어로, 할랄의 진정한 의미는 “Halalan Thoyyiban(할랄란 토이반)”의 신조로도 표현된다. 이 개념은 할랄식품이 위생적인 조건에서 생산되고 건강에 해롭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신선 농산물, 곡물, 달걀, 생선 및 해산물 등이 대표적인 할랄식품이다.

할랄의 반대 개념은 ‘하람(haram)’으로 불법적이거나 금지된 것을 의미한다. 알코올, 돼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육류 등이 대표적인 하람식품이다. 할랄과 하람은 무슬림 생활의 모든 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용어로, 일반적으로 식품, 육류제품, 화장품, 개인 위생용품, 의약품 등 식품성분 및 식품 접촉물질과 관련하여 사용된다.

1 Halalan Thoyyiban : 무슬림에 허용되며 (Permissible), 건강에 좋고 (Wholesome), 안전하며 (Safe), 양질 (Quality)이라는 의미

* 할랄식품 조건 : 이슬람 율법에 따라 소비가 금지된 성분이 없으며,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세척된 기구, 장비 및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 제조, 생산, 제작 및/또는 보관된 식품

* 하람식품 조건 : 취하게 하거나 중독성이 강한 것, 혈액 및 부산물,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되지 않은 육류, 우상 숭배에 이용된 가축, 돼지, 불순물로 오염된 식품 등



1



- 자료** 1 MIDA (Halal Industry to contribute 8.1 pct to GDP, RM56 bn export revenue in 2025)
2 DinarStandard (State of the Global Halal Food)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 할랄인증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는 할랄인증을 위해 법으로 규정된 말레이시아의 관할 기관으로, 이에 따라 JAKIM은 말레이시아 할랄인증 로고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1년 교역품 명시법(Trade Description Act) 개정 이후, 현지 및 수출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기관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할랄 규정을 모니터링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관리 기관이기도 하다.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 및 상품의 경우, JAKIM의 할랄인증을 준수하거나 JAKIM이 인정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y, FHCB)의 할랄인증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 및 상품을 할랄로 표시할 수 없다. 또한 JAKIM이 인정한 FHCB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모든 식품 또는 상품에는 인증기관의 이름이 표시되어야 하며 FHCB를 통한 상품인증은 해당 제품이 생산된 국가의 할랄 인증기관에서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 할랄 표준은 JAKIM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선농산물은 할랄식품으로서 할랄인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육류 및 유제품에 대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수적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할랄인증 식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수요는 육류 및 유제품을 넘어 견과류, 제과, 냉동 및 건조 농식품, 베이커리와 같은 식품으로 확대되었다. 해당 식품들은 할랄인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와 기업에서 품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벤치마크로 JAKIM 할랄 인증을 권장하여 대부분의 외식업체와 식품 제조업체가 비육류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통매장에서는 매장 내 비할랄 식품관을 별도로 운영하거나, 일부 매장에서는 비할랄 식품을 취급하지 않음에 따라 할랄인증 식품이 아니면 현지 무슬림 소비자들에게 한국 농식품을 소개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AEON Cheras 매장 내 별도 비할랄식품관



BIG(Ben's Independent Grocer) Publika 매장 내 별도 비할랄식품관

OSUDA
HEALTH IS THE BEST GIFT



건조과일
할랄인증 사례

자료 <https://osuda.com.my>

건과류
할랄인증 사례



자료 #HWT
(Are Korean Honey Butter Snacks
Muslim-Friendly?)



할랄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신선농산물



할랄인증 취득 절차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 취득을 위해 모든 제품군은 기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절차는 다를 수 있다.

기본 절차

- 1 MYeHALAL 온라인 시스템(<http://apps.halal.gov.my/myehala>)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 검사비용 청구 및 납부
- 3 현장 및 제품 견본 적합성 검사
- 4 감사 결과 회의
- 5 할랄인증서 발급

JAKIM은 한국에서도 할랄 인증이 가능하도록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KMF)와 한국할랄인증원(KHA) 두 개의 기관을 인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두 기관의 처리 순서는 거의 동일하다. 할랄인증은 발급일 기준 1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인증을 갱신해야 한다.

* 취득 절차 및 증빙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조

KMF : <http://kmfhalal.org/en/cert> KHA : <http://www.koreahalal.kr/base/en/mobile/sub3/02.php>



JAKIM 할랄인증서 샘플



JAKIM 할랄인증로고



KMF 할랄인증로고



KHA 할랄인증로고

Key Point

전 세계적으로 할랄 식품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며, 말레이시아 정부 또한 먹거리 안전과 할랄 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슬림 소비자들에게 할랄인증 식품 소비를 권장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무슬림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이는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의 63.7%를 차지한다. 말레이시아 현지 무슬림 소비자뿐만 아니라, 채식주의자 역시 JAKIM 할랄인증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선농산물은 할랄식품으로서 할랄인증이 필요하지 않고 가공 농식품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할랄인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무슬림 소비자들에게 할랄인증 식품 소비를 권장함에 따라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공 농식품 할랄인증을 등록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할랄인증 여부는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할랄인증 로고는 마케팅 요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쿠알라룸푸르지사 허 정



본격적인 할랄산업 육성에 나선 인도네시아



할랄(Halal)이란?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서 정의하는 할랄의 사전적 의미는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된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용어가 식품 및 기타 소비재와 접목될 때는 '무슬림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된'이라는 뜻으로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하람(Haram)'으로 '금지된'이라는 뜻의 이슬람 율법상 무슬림에게 엄격히 금지되는 식품이나 소비재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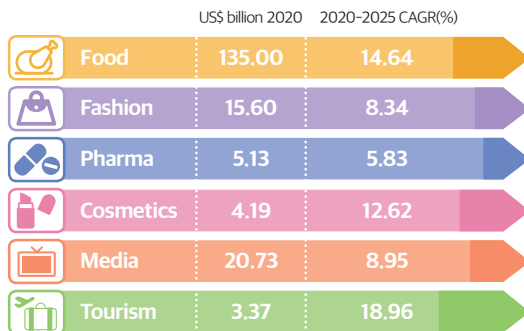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규모

전체 인구의 86%인 약 2억 3,520만 명의 무슬림 인구를 지닌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할랄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다. Global Islamic Economy Report 2020/2021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의 할랄시장은 1,840억 달러로 이중 식품 산업은 1,35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5년 연평균 인도네시아 할랄푸드 성장률은 14.64%로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 시장 규모

(단위 : 10억 불)



자료 Indonesia Halal Market Report 2021/2022

인도네시아 할랄 산업 육성정책

할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글로벌 할랄 산업단지 개발, 할랄 식품과 제품의 개발, 인증업무 통합 등을 위해 할랄인증청(BPJPH)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아구스(Agus)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이 향후 5년에 걸쳐 500헥타르 규모의 할랄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할랄 산업단지에는 할랄 제품을 위한 통합산업 공정시설, 연구개발센터, 식품기술 폴리테크닉, 할랄 품질관리 시스템, 자금 지원기관, 항만 및 세관시설이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또한 할랄 식품 및 제품의 개발과 인증 통합을 위해 BPJPH(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 LPPOM-MUI(올라마협의회 할랄인증 실무기관)의 식품의약품 평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밝히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산업단지의 국제 할랄 허브화를 위해 스페인 코르도바 할랄공원과 말레이시아 조호르의 이스칸다르 할랄파크 및 페낭 인터내셔널 할랄 허브와 글로벌 할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며 이러한 정부의 대규모 산업정책이 국내 중소 산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식음료협회(GAPMMI)와 협력하여 할랄 생태계를 위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글로벌 할랄 산업단지 예상도

자료 republika.co.id



BPJPH 설치를 통한 할랄 인증 강화 움직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9년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방침을 밝혔으며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부터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 및 음료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대해 세부 내용이 불분명해 업계의 혼란을 야기하였으나 작년 9월 '할랄 제품 보장법 시행에 관한 정부규제 2021년 39호'를 발표함에 따라 할랄인증 관련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및 구체화하였다.



할랄인증청 발표 신규 할랄 로고

자료 republika.co.id



할랄제품보장법 시행 규정 주요 내용

기존	변경
MUI 지정 할랄인증 컨설팅업체 통해 신청	할랄인증청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
인증소요기간 불명확	인증 단계별 소요기간 : 21~41일 소요
기존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2년	할랄인증서 유효기간 4년
기존 MUI 할랄 로고 사용	할랄인증청 로고 사용
해외 할랄인증기관과 교차인증 불허	할랄인증청 상호 인정 해외 인증기관 할랄인증 상호 인증

작성자 자카르타지사 최동은

Key Point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내 할랄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 여론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 및 할랄 인증 강화 움직임을 반기고 있는 모습이다. 할랄인증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수출업체는 이러한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할랄시장의 중심! UAE와 채식버거 트렌드

할랄시장의 허브로 거듭나는 UAE

2020년 기준 세계 인구의 24.9%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 인구는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26.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지역에서부터 유럽, 미주지역으로 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여러 식품회사가 할랄을 포함한 제품(치킨너겟, 라자냐, 피자, 이유식 등)을 출시하고 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 성법에서 지정한 불결한 재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에게 할랄음식이 다른 음식이나 재료에 비해 위생을 더 중요시 한다는 인식을 주면서 할

랄식품은 식품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게 되었다.

F&B시장이 연간 3.8% 성장하고 있는 UAE는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할랄산업 글로벌 관문으로서 정부의 다양한 할랄 지원을 통한 시장 진출의 기회가 많은 편이다.

UAE에 소재한 할랄 F&B 무역 인큐베이션 센터는 기업들에게 프리미엄 혜택을 제공하여 할랄식품 비즈니스 운영 비용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는 UAE가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식품 무역의 교차모로서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상적인 허브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HALAL INSIGHT

Saleh Lootah – Chairman of Food & Beverage group
9 Dec 2021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시 UAE F&B 제조 그룹 회장의 개회사

자료 <https://mid-east.info>

한편, 이번 2020 두바이 엑스포와 함께 개최된 제1회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Global Business Forum ASEAN)은 할랄 산업이 UAE, GCC 및 ASEAN 기업 간의 무역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경을 초월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임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포럼에 참석한 할랄 관련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불황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4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할랄시장 또한 침체되었지만, 할랄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서는 할랄 산업의 핵심 목표인 비무슬림 소비자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할랄 제품과 서비스를 브랜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 두바이 할랄 엑스포 : 할랄 산업 도약의 발판

오는 9월에 개최 예정인 '2022 두바이 할랄 엑스포(HALAL EXPO DUBAI 2022)'는 할랄 관련 업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두바이를 할랄 식음료시장의 심장이자 허브로'라는 슬로건으로 매년 개최되고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엑스포는, UAE 현지 제품을 세계에 알리고 각국 업체들의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B2B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2022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총 2일간 두바이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할랄 바이어, 제조업체, 수출업체 외에도 더 나아가 할랄 포장 및 운송과 관련된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하므로 할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인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진행될 2022 두바이 할랄 엑스포는 식품을 중심으로 화장품, 의류, 의약품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선보일 예정이며 특히 전 세계 50개국에서 참가한 업체들의 최신 할랄 식품 동향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다. 해당 엑스포 주최사(Orange Fairs & Events)에 따르면 전년도에는 방문객 88%가 참가 업체와 거래가 성사되는 등의 쾌거를 이루었으며, 전시 외에도 할랄 전문가들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세미나 및 포럼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마련되어 할랄 산업에 관심이 있는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할랄 엑스포 두바이 2022 로고



자료

<https://www.tradefairdates.com>

엑스포에서는 참관객들에게 홍보 제품을 즉각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할랄 업계 최고의 업체들과 제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에 할랄 진출을 준비하는 업체들에게는 실효적인 할랄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식품 및 농업 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업체(Farrelly & Mitchell)의 연구에 따르면 GCC 국가들은 500억 달러 상당의 할랄 제품을 수입하며, 이중 UAE의 할랄 수입액은 200억 달러로 GCC국가 할랄제품 수입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큰 규모의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해외 각국의 식품 업체들은 할랄인증을 획득하고 중동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UAE 채식 버거 트렌드

UAE에서는 비건주의 소비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일반 소비자들도 건강한 채식 위주의 식단을 즐겨 찾고 있다. 이에 따라 UAE 주요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에서는 채식패티를 이용한 다양한 메뉴 개발 및 출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현지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100% 할랄 인증된 채식버거를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UAE 식품브랜드 Healthy Farm 관계자는 올해 2월에 개최된 두바이 식품박람회(Gulfood 2022) 행사장에서 “앞으로 500,000명 이상의 소비자를 건강주의 소비자로 전환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Healthy Farm은 UAE 소비자의 40%가 몸에 이로운 대체육류를 선호하고 있다는 새로운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 식물성 단백질 버거를 출시함으로써 곁푸드 박람회에서 ‘가장 혁신적인 할랄 제품상’을 수상함과 동시에 현지 식품 업계에서 화제를 모았다. 해당 채식버거 제품은 일반 치킨버거보다 단백질이 20%, 칼로리가 40%, 지방이 50%, 탄수화물 40%, 나트륨 60%, 칼슘 70%, 철분이 60% 더 많아 다량의 단백질, 비타민 및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방부제, 글루타민산 나트륨(MSG), 인공 색소, 트랜스 지방, 유제품, 계란, 글루텐이 없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메뉴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식물성 버거 생산은 기존 공정보다 훨씬 적은 양의 물과 토지를 필요로 하며, 일반 버거보다 87%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므로 환경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육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식업계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히 채식버거 메뉴 개발에 힘을 들이고 있다.



Language ▾ Careers Contact us

Q Search 📍 Locate Me [Order on McDelivery](#)

Our Menu ▾ About Our Food Your Right To Know Our App Family Trending Now

Veggie Burger Deluxe

436 kCal

So good you won't believe it's vegetarian!

[Order on McDelivery](#)

The makings of the Veggie Burger Deluxe

- Sesame Seed Bun
- Spicy Tandoori Sauce
- Tomato
- Lettuce
- Grill Veggie Patty
- Sliced Onion

자료 <https://www.mcdonalds.com>

작성자 두바이지사 이은주

Key Point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UAE 식품업계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글로벌 할랄시장이 이산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각국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2022 할랄 엑스포 두바이는 경쟁력 있는 한국 할랄 제품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산 식품에 대한 UAE 현지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점을 활용하여 할랄 시장에 첫 도전을 내딛을 한국 기업에게 UAE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더불어 건강식에 대한 현지 소비자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할랄 및 채식 업계의 다채로운 제품 출시 역시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이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한 소비자들의 선택, 할랄 및 비건시장

유럽의 할랄 소비 인구 및 비건 추세

유럽의 할랄시장은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성장 중이다. 무슬림에게 할랄 제품은 신성한 방식으로 도축되어 종교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므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할랄시장은 무슬림 인구에 비례하여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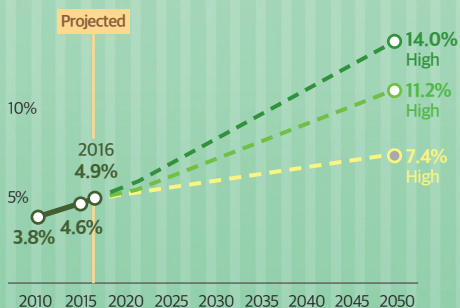
2050년까지 2배 가까이 성장 가능한 할랄 시장

유럽 전체 인구의 5% 정도를 차지하는 무슬림 인구는 이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영프독은 인구의 20%, 스웨덴은 인구의 30% 가까이 무슬림 인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유럽 전체 무슬림 인구는 7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역시 향후 30년간 2배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무슬림의 출산률이 2.6%으로 타 종교 대비 높은 편이며, 인구 구조 또한 젊은 인구층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 때문에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유명한 테스코, 오상, 까르푸 같은 대형 유통체인은 할랄 전용 코너가 따로 존재하며, 유럽 무슬림협회의 '유럽 할랄 식음료시장 성장 리포트'에서는 할랄시장이 연평균 5.1%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가능성에 비해 여전히 유럽의 할랄 식음료시장은 어느 한 업체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이 아닌 다양한 시장 참가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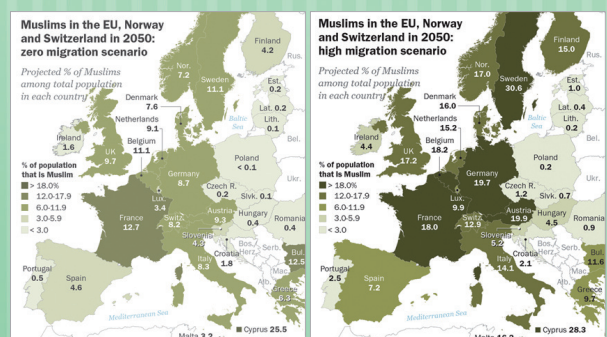
2050 무슬림 증가세 예상

(단위 : %)

다양한 이민 시나리오에서 유럽인구의 무슬림 비율



2050 무슬림 비율 : 이민자 없을시(좌), 이민자 없을시(우)



유럽 할랄시장의 선두주자인 프랑스

프랑스는 현재 인구의 9% 가까이가 무슬림 인구인 만큼 할랄시장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프랑스 할랄시장은 단순히 정육점 뿐만 아니라 할랄 레스토랑, 대규모 유통체인의 할랄 브랜드가 입점하는 등 그 존재감과 위상이 높은 상태이며, 시장에서 육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1991년 할랄 도축 방식 인증제도가 최초로 도입됐고 2000년에 들어서는 10개 이상의 인증 기관들이 생겨났는데 현재는 파리, 리옹, 그리고 에브리의 모스크 3곳이 가장 중요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프랑스 냉동 닭 수출업체 1위인 France Poultry의 DOUX 브랜드는 100% 식물성 사료를 먹인 프리미엄 할랄 전문 닭 생산량의 90%를 아라비아 반도로 수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Casino의 Wassila 브랜드와 Reghalal, Isla Delice 3사가 할랄 육류시장에서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 전문 잡지 LSA에 따르면 2019년 할랄 관련 제품의 매출액은 3억 3천 만 유로에 달했으며, 그중 1억 1500만 유로가 가금류, 6천 만 유로가 돼지고기 가공품이었다.



할랄 닭 Doux
France Poultry 社



● 할랄 닭 Doux
Reghalal 社



할랄 닭 슬라이스
France Poultry 社



● 할랄 꼬르동 블루
Isla Delice 社

할랄과 비건, 그 사이의 경계선

‘할랄은 종교적 의식을 통해 도축된 고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식물성 대체육 및 과일 등 다양한 비건 제품들이 할랄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사실 할랄이라는 뜻 자체가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된 것”이라는 뜻인데 곡물, 과일, 채소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이 무슬림들은 이를 할랄 음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육류의 경우, 도축이라는 불결한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슬림이 직접 종교적인 방식으로 도축하여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할랄음식임을 인증하는 절차가 생겼다. 이 덕분에 판매자는 본 제품이 할랄 음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복잡한 절차만큼 제품을 더욱 높은 가격에 판 매할 수 있으며 무슬림들 역시 일일이 해당 음식이 종교적으로 먹어도 되는 할랄음식인지 판단할 필요없이 할랄 인증 제품을 구매하면 되므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비건제품의 경우 비건인증 의무가 없고 법으로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 스스로가 제품이 식물성 제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제품에 비건 관련 홍보 문구나 픽토그램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에 생산자마다 다른 방식으로 비건 관련 표기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할랄의 경우, 사업자가 공인된 기관의 할랄인증 마크 없이 자체적으로 제품의 포장이나 이름에 할랄이라고 표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할랄인증 마크가 필요한 경우 유럽 내 지정된 할랄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할랄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제품명과 제품 포장에 할랄 표기를 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는 기본적으로 과일이나 채소를 할랄(허용된) 음식으로 보기 때문에 언뜻 비건과 할랄이 겹치는 것으로 혼동되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엄연히 할랄은 기본적으로 돼지고기와 알코올 성분들을 엄격히 배제하고 있으므로 알코올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에 따라 제품이 비건이긴 하지만 할랄은 아닐 수도 있다.





프랑스산 Beyond Meat 社
식물성 대체육 소세지
가격 4.29 유로 (200g)



프랑스산 Les Petites Pousses 社
식물성 코코넛유 요거트
가격 3.09 유로 (90g*2)



모나코산 Vegan Deli 社
식물성 대체 체다치즈
가격 3.69 유로 (220g)

육류 소비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유럽

2020년 Veganz 슈퍼마켓 체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유럽의 22% 이상이 플레시테리안이며 지난 4년간 베지테리언의 숫자는 2배 가량 증가해, 현재는 그 수가 2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육류 섭취를 줄이고자 하는 그룹을 합치면 유럽 인구의 30% 이상이 베지테리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오스트리아, 독일 포르투갈의 경우 플렉시테리안의 비중이 인구의 30% 정도로 그 비율이 높고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점차 베지테리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실제로 비건식 식단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8%에 그치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채식 기반의 식단이나 대체육 단백질 섭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프랑스 모노프리 슈퍼마켓에서는

비건인증 받은 식물성 대체 육류와 유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비건 및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다양한 코너에서 팔리고 있다. 모노프리의 경우, 100% 식물성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자체적으로 할랄제품(Produit Hala)이라고 웹사이트에서 표기하여 판매하고는 있지만 상품명이나 포장에 별도의 할랄 표기나 할랄인증 마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않다.

Carrefour 유통체인 역시 모노프리처럼 할랄 코너에서 제품들을 따로 추천하고 있다. 할랄 버거 소스처럼 실제 파리의 모스크에서 할랄인증을 받아 제품명과 포장에 할랄 표기를 한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식물성 제품들(팔라펠, 후무스 등)은 할랄인증 마크 없이도 할랄제품으로 팔리고 있다.

유통업체에서는 사실상 할랄로 취급되는 식물성 기반의 제품들에 대해서는 생산자들이 제품 내 별도 할랄인증 및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할랄식품으로 분류해 판매하고 있다.



La Belle Aude 社 식물성 레몬 맛 소르벳



Samia 社 할랄 버거 소스

할랄 인증 관련 식품 분류

카테고리 A	빵가루 입힌 제품 및 탄수화물 파생 상품
카테고리 B	유제품 및 파생상품
카테고리 C	통조림 식품
카테고리 D	냉동 제품
카테고리 E	음료 및 다과
카테고리 F	육류 및 육류 제품
카테고리 G	첨가제
카테고리 H	약리학
카테고리 I	미용

Catégorisation des principaux produits alimentaires

catégorie A	Produits panés et dérivés glucidiques
catégorie B	Produits laitiers et dérivés
catégorie C	Conserves alimentaires
catégorie D	Produits surgelés
catégorie E	Boissons et rafraîchissement
catégorie F	Viandes et produits carnés
catégorie G	Additifs
catégorie H	Pharmacologie
catégorie I	Cosmétologie

생산자가 할랄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온·오프라인 유통망의 할랄코너에서 판매하기 위한 인증 등의 별도 제한사항은 없는 것이다.

실제로 파리 모스크의 할랄인증 관련 식품 분류를 보면, 순수한 과일이나 채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세부 카테고리별 금지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 동물성(특히 돼지고기) 지방이나 알코올, 첨가제 등 가공식품일 때 혹여나 첨가될 수 있는 비할랄 식품 요소들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엄밀히 규정하고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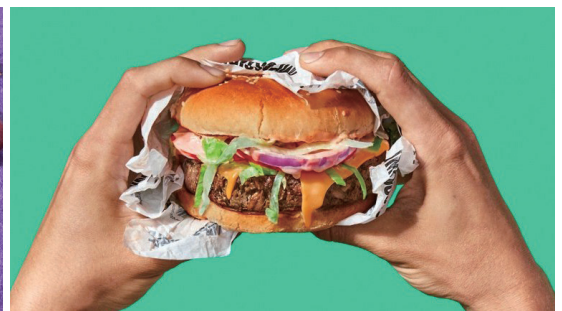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유럽의 식품 트렌드

이전에는 제품의 맛과, 가격,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근거였다면 이제는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건강이라는 새로운

가치들이 새로운 선택 근거가 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렉시테리언과 비건 추세도 소비자들의 신념이 일상에서 소비하는 제품들에서부터 담긴다고 보아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할랄의 경우, 이때까지는 육류 위주로 인식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식물성 대체육과 식물성 우유 등 비건이 유럽시장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비건과 할랄의 교집합이 생겼다는 것이다. 할랄과 비건인증 모두 서로 다른 기준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생산되는 제품들의 재료부터 최종 생산과정까지 엄격하고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생산된다면, 해당 제품은 할랄인증과 비건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증 제도는 신뢰의 구축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양질의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작성자 파리지사 최장민

Key Point

할랄시장은 유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 분야도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유럽 할랄시장은 시장에서 아직 독점적인 기업 없이 다양한 기업들이 할랄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시장 초기 단계이다. 할랄과 비건 모두 가격보다는 제품이 깨끗하고 공정한 과정으로 생산되는지가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있어 훨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기준을 엄격하게 지켜 제품을 생산한다는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유럽에서는 한국산 육류가 수입되지 않고 있으며 할랄인증의 경우에도 육류에 대해서는 훨씬 까다롭다. 또한 도축 방식에 대한 논쟁과 규제 역시 유럽 내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어 할랄인증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최근 비건을 위한 식물성 대체 육류 및 유제품 그리고 채식 제품들의 경우 할랄음식으로 간주될 수는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비육류 제품이 주요 수출 품목인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할랄시장을 유럽시장 내 새로운 시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